

本會에 드리고 싶은 提言



강신원
(경기도 연천군지회장)

우리 농업기술자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전국 회원님들의 건승하심을 축원하면서 인사올립니다. 저의 제언은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 소견이오니 설사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혜량하시어 지적 편달해 주시기를 양망합니다.

1. 2004년 중앙대의원 임시총회에 참석한 소감

지난 12월 22일 본회의 농업기술진흥관에서 열린 임시총회의 가장 큰 행사는 단연 중앙회장을 비롯한 임원 선출 문제였습니다.

전국에서 참가하신 250여명 대의원님들의 뜨거운 토론으로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은 自祝해야겠지만 심히 아쉽게 여기는 바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本會則 第50條에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서조항이 있다고 해서 비상사태도 아닌데 선거방식을 당일에 바꾸는 것은 무리수이며 대의원들에 대한 무례이고 후보들의 아전인수적인 작태라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이번의 일을 계기로 회칙 조항을 명확하게 정리해 둘 필요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인류의 많은 발명품 가운데 으뜸되는 발명은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정정당당히 경합하여 승복하는 미덕은 어느 것보다도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까?

2. 本會의 강령제창은 당연히 지켜져야 합니다.

각종 회의 및 행사때는 국민의례와 함께 본회의 강령(목표)을 반드시 제창해야 한다고 會則 第10條에 명기돼 있음에도 왕왕 간과하는 것은 앞으로 절대 지양해야 합니다. 먹고살기 힘든 터에 귀한 시간을 쪼개서 불원천리하고 회합에 참석하는 것은 사치가 아니고 강령이행(목표달성)이라는 선도농가의 사명감 때문인 것입니다. 단추를 잠그고 웃고름을 다시 메는 순간이 바로 강령제창임을 원로 선배들은 알으시고 「반드시 제창」문구를 회칙에 강조해 두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3. 市·郡支會의 결성요건으로 회원 30인은 무리입니다.

本會 會則 第20條는 支會의 결성요건으로 30人 이상으로 됐지만 지역사정에 따라 좀 더 하향조정하여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야 합니다. 저의 연천군지회를 볼때 기존 회원 명단이 50여명에 이르지만 현재 적극 활동하고 있는 회원은 10여명에 불과하는 실정입니다. 회원 확충문제는 제 임기동안의 최대 과제로서 욕심같아서는 본래대로 50명이상 회원을 만들고 싶습니다.

4. 市·郡支會의 임원 임기 4년은 너무 길다고 봅니다.

2년이나 3년 단임으로 단축하지 않으면 조직의 신진대사가 늦어서 타성에 젖게 되며 담보 아니면 경직상태가 필연적입니다. 무거운 짐은 서로 나눠져야만 효율적으로 목표 달성에 이르게 됩니다. 꼭 더 하겠다고 하면 중간평가를 통해서 검증과 함께 활성화를 꾀해야 합니다. 경쟁하는 기간(선거)이 소모전이라고만 할 수 없고 오히려 발전의 계기로 삼는다면, 임기는 짧을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400m경주를 볼 때 1명의 주자 팀과 4명의 주자 팀의 승패는 너무나 뻔한 것 아닙니까?

5. 本會 「元老會議」의 常設을 제안합니다.

- ① 본회의 중대 안건에 대한 元老會議의 최종동의와 追認 절차를 제도화 합니다.
- ② 농업기술자협회가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은 원로 회원 선배님들의 초석이 아니었다면 불가능 했음을 누구나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선배님들에게 일정지분의 발언권을 드리는 것에 인색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것입니다.
- ③ 老· 壯· 靑의 조화로운 팀웍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나 미래지향적인 발전의 원동력이 되리라 믿습니다.

6. 本會 산하에 「常虛思想研究會」의 발족을 제안합니다.

- ① 상허사상(농민의 정신혁명, 농업의 기술혁명, 농촌의 생활혁명)은 본회의 탄생과 존립 기반입니다. 연구진을 동원하여서라도 學問學派로 발전시켜 계승해 가야합니다.
- ② 건국대학교 농대를 거점으로 전국대학 농업고등학생들에게 보급 고취시켜 「學內동아리」활동으로 권장 발전시키며, 장차 농업기술자협회의 차세대 회원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 ③ 상허 선생의 훌륭한 정신을 현창하는 운동은 곧 본회의 목표이며, 나라사랑운동이고, 조국 통일 운동임을 확신합니다. 여건과 기회가 주워진다면 이에 따르는 철학의 정립과 단계적 전개방법 그리고 예측된 효과를 同志들과 함께 하나씩 조명해서 마스터 플랜을 제시하겠습니다.

미처 정리되지 않은 단견(短見)들을 부끄럽게 생각하오며 제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 강 신 원 (서울·인천·경기도연합회 부연합회장, 경기도 연천군지회장)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북삼리 161번지 Tel. (031)833-6545, H.P. 018-523-6545